

노벨상의 41번째 의자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느 책에서 프랑스학술원의 회원수는 4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프랑스 사회에서 이 학술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라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만큼 각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분만이 프랑스학술원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학술원의 권위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프랑스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또한 우리보다는 분명히 더 선진국이니, 프랑스학술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일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학술원 회원이 되기 위한 선정자격은 또 얼마나 까다로울지 능히 짐작이 간다.

많은 프랑스 국민들, 그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 중에서 40명을 엄선하다보니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프랑스학술원 회원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구나, 몇 년이나 학술원 회원 문턱에서 후보로만 그치고 마는 학자들도 적지않다고 들었다. 그러니, 학술원 회원이 앉는 40개의 의자에 앉지 못하고 번번히 41번째 의자에만 엉덩이를 걸치게 되는 학자들이 매년 얼마나 많이 쏟아질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노벨상도 마찬가지이다.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존해야만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고,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 물리학자, 화학자, 또는 생리학자 이외의 학자들, 가령 수학자나 지질학자 등은 제 아무리 뛰어난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노벨상은 받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세기적 연구를 하고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과학사자들은, 이런 경우, 그 학자들이 노벨상의 41번째 의자에 앉았다고 이야기 한다.

41번째의 의자를 차지한 대학자로는, 주기율표로 유명한 멘델레예프나 열역학과 통계역학의 기초를 세운 깁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윈트겐이나 반데르 발스 같은 동시대의 학자들보다 결코 학문적인 탁월성이 뒤떨어졌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41번째의 의자를 차지한 것은 “최근의” 여러 발견에 대하여 상을 수여한다는 노벨상 선정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를테면 멘델레예프는 1905년과 1906년 2차례나 후보에 올랐지만, 그 이론은 “자연의 이치로 확고한 기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905년엔 염료와 유기화합물 합성에 유명한 바이에르에게, 또한 1906년엔 순수 불소를 제조하고 전기를 개발한 트와상에게 5대 4의 표차로 노벨화학상을 양보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1907년 세상을 떠났다. 말하자면 그의 업적이 “너무 오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41번째 의자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페이튼 라우스는 1911년 악성종양이 바이러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하고도 1966년도 노벨생리학상을 받을 때까지 56년간 41번째 의자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물론 그 동안 세상을 떴으면, 그는 영원히 41번째 의자에 머물렀을 것이다.

노벨상 선정위원회의 선정과정은 철저히 미공개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사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선정 과정에서 “수상할 만하다”고 판정했으면서도, 최종단계에서 수상이 유보된 학자들의 이름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계중에는 물론 깁스를 들 수 있다. 고분자 물리화학을 공부하는데 깁스만큼 자주 등장하는 이름도 없을 것이다. 그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갈릴레오나 뉴턴의 업적에 필적한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전에 한번도 후보로 추천된 일이 없음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추천만 되었으면 당연히 받았으리라 생각되는데도……. 만약 노벨상이 1870년대나 1880년대에 있었더라면, 멘델레예프도 틀림없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다. DNA가 유전의 담체라는 것을 발견한 에이버리의 업적은 너무나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당대의 학자들에게 외면을 당해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더 많은 것이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겠다”는 평가와 함께 유보되었다. 그는 영원히 41번째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1955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에이버리 덕분에 DNA에 관한 노벨상은 1959년에 오초아와 콘버그에게 돌아갔고, 1962년에 왓슨과 크릭에게 돌아갔다. 만약 그가 4년을 더 살았더라면, 분명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노벨상의 41번째 의자에 앉게 된 예들을 무수히 들 수 있다. 스트레스 반응을 분석한 셀레는 “수상에 상응하는 업적”으로 평가되었지만 41번째 의자에 머물고 말았다. 라크다시도젠을 발견한 엠덴은 1923년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당시 2인 이상의 공동수상 금지 규정 때문에 아깝게 41번째 의자에 머물고 말았다. 살균소의 활동 양태에 관한 코언의 연구업적은 “상을 탈만 하지만, 공헌자가 많아 상 하나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벨상에서 제외되었다(물론 그의 동료들과 후예들 중의 일부 학자들은 노벨상을 수상하였지만). 1931년에 에스카임과 존텍은 임신 검사법의 개발로 거의 노벨상을 탈뻔 하다가 아깝게 41번째 의자에 앉았지만 1973년 다시 후보로 추천되었을 때 “이미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 생리학자인 쿠인케는 1909년과 1918년 두차례 후보로 올랐지만 1918년엔 거의 마지막 수상후보로 고려되었지만 “상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영원히 41번째 의자에만 앉게 되었다.

이처럼 노벨상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수상에 얹힌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필자는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들 보다는, 영원히 41번째 의자에 앉은 분들이 정작 노벨상 수상자들보다 더 존경받아 왔고,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더 많은 학문적 공헌을 했었다는 과학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두 다 노벨상을 수상할 수는 없지 않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탁월한 분들임엔 틀림없지만, 그 밖의 많은 분들이 41번째의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땀과 눈물을 흘려왔고 또 지금도 흘리고 있다. 우리는 이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을 드러야 할 것이다. 이런 성과들이 결코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노벨상이 그 학문의 최고수준을 보상받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업적이 학문적으로 탁월성의 지표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으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든지 아니면 노벨상의 41번째 의자를 차지할 수 있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필자는 학회활동을 하면서 얼마전, 지방의 어느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30대초반의 젊은 K교수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외국의 우수대학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건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을 늘어 놓았다. 대학원생은 어찌다 한해 걸려 들어오고, 연구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자신의 꿈을 펼치기엔 현실이 너무 어둡다는 하소연은 어찌보면 절박하기까지 하였다. 많은 대학원생들을 거느리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자신의 위치가 서글픔을 느끼는 하소연을 1시간 동안 늘어 놓았다.

K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자는 진심으로 많은 반성을 하였다. K교수에 비하면 대학원생도 많고 연구여건도 훨씬 나은 편인데, 그동안 한다고 하는 일들이 노벨상의 41번째 의자가 아니라 그 의자의 재목도 될 자격이 없는 일들을 하느라 천방지축 뛰어다니기만 바빴던 것같이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다.

주위에서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노벨상의 41번째, 42번째 의자를 차지할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멀리까지 가질 않더라도, 우리 고분자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외국 대학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의 학문세계를 구축한 Y선생님, H선생님은 물론이고,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이론이 아름다운 R선생님 등 많은 분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거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외국학회지를 통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모대학의 H선생님이나 J박사 그리고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세계 학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K, J, K, C선생님 등은 물론이고 특히, 단 1편의 논문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몇몇 젊은 학자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다(이름 석자를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지만 영문 initial로만 이름을 표시한 것은 본인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렵기도 하고 또한 충분한 자격이 계시지만 지면관계상 혹은 필자의 학문에 대한 식견 부족으로,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적지않은 분들께 혹시라도 실례를 드리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저어해서이다). 우리 학회가 20년의 성년이 될때까지 초창기의 선배 학자들께서 고분자라는 새로운 이름의 학문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가를 상상해 보면서 필자와 긴 이야기를 나눈 K교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게 주어진 이 여건이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단 1편의 논문으로도 노벨상의 41번째 의자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야망과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뜬 구름잡는 식의 연구만 해 온 필자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독백이기도 했지만.....

K교수와와의 대화는 필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